

자료명	최태원 대통령 특사, 스페인 총리 면담
엠바고	3월 2일(木)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3/1(水) 12:00부터)
문의처	유치협력팀 원윤재 팀장(010-2747-0384), 조민애 차장(010-4321-9151)

최태원 회장, 스페인 총리와 면담 ... 경험 확대 · 엑스포 유치 교섭 논의

-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페인 공식 방문, 유럽 3개국 순방 시작
- 스페인 총리,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주요 인사 면담 갖고 협력 증진, 엑스포 유치 교섭 활동 나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총리 궁에서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스페인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펼쳤다.

이번 면담에 한국측은 대통령 특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홍성화 유치사절단 위원, 성일경 삼성전자 구주총괄 부사장이 참석했고, 스페인측은 산체스 총리, 마누엘 데 라 로차(Manuel de la Rocha) 총리실 경제수석, 엠마 아파리치(Emma Aparici) 총리실 외교보좌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1> 최태원 회장, 산체스 스페인 총리 면담



최태원 회장은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며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면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엑스포가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단기간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될 것” 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를 다음 개최국에 전수하여 지속적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최태원 특사의 스페인 방문을 환영하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의 노력과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이 가진 역량을 잘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반도체의 산업 생태계도 잘 갖춰진 국가” 라며 “한국 기업의 스페인 투자 진출이 확대되길 바라며,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르반테스 문화원을 통해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증진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스페인 총리 면담에 이어 3월 1일에는 레예스 마로토(Reyes Maroto)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을 만났다.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엑스포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나눴다.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는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최태원 회장은 스페인 방문에 이어 3월 2일 부터는 덴마크, 포르투갈을 방문해 엑스포 유치교섭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방문국과의 경제협력 및 기업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